

아름다운 생존 여성영화인이 말하는 영화

감독 임순례



제작 (사) 여성영화인모임,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제작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주진숙

기획의 말

한국영화의 역사에서 여성인 영화감독 혹은 기술 스태프의 존재는 미미했다. 영화현장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곳이며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현장의 꽃이라 불리는 스크립터 정도였다. 그러나 일제 하 영화현장의 사진 속에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흔적은 지배적인/남성중심적인 한국영화사가 지우기에는 너무나 뚜렷이 새겨져왔다. 이제 한국에서 여성영화인들의 활동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 다큐멘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한국 여성영화인들의 음성을, 자각을, 자부심을, 그리고 역사를 담기 위한, 또 그들의 자리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기기 위한 큰 발걸음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듀서 주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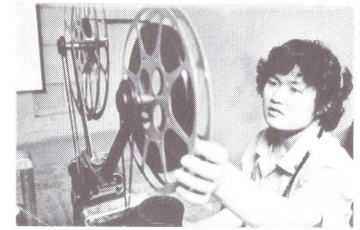
(사) 여성영화인모임 이사,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아름다운 생동
여성영화인이 말하는 영화

스태프

프로듀서 주진숙
연출 임순례
기획 이순진
조연출 김선아
라인프로듀서 안지혜
촬영 정종화 조원동 김윤희
편집 김종식
음향 도장수
영어자막 조영정
해외코디네이터/인터뷰 남인영
해외촬영/인터뷰 김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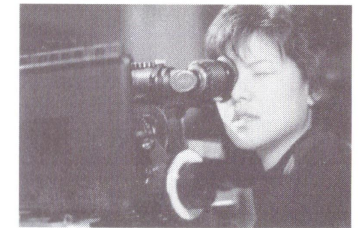
제작 여성영화인모임,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제작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이미레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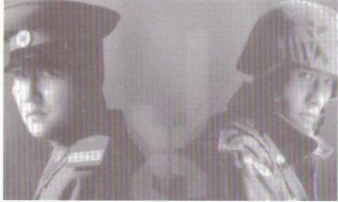
김영희 (편집기사)



김윤희 (촬영기사)



최은희 (감독/배우)



〈공동경비구역 JSA〉



〈반칙왕〉



〈첫 경험〉



〈주유소 습격사건〉



〈파란대문〉



〈미망인〉

역사 속의 여성영화인들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은 스크린 위에서 빛을 발하던 수많은 여성 스타들의 모습이다. 문정숙, 김지미, 최은희, 조미령, 황정순, 엄앵란, 문희, 윤정희, 고은아, 남정임, 안인숙, 장미희, 정윤희, 유지인... 트로이카라는 용어로 불리던 스타들, 스캔들로 이름을 날리고 사라진 스타들... 강수연, 심혜진 등에서 이젠 심은하, 전도연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스크린 뒤에는 어떤 여성영화인들이 있었을까. 아마도 여성영화인이라 하면 우선 스크립터를 떠올릴 것이다. 영화제작현장에서 그 직종만은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여성영화인들이 우리 영화의 역사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아이를 들쳐 업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미망인〉(55)의 박남옥 감독, 스크립터로 시작하여 제대로 현장경험을 쌓은 후 수 편의 시나리오와 〈여관사〉(62), 〈홀어머니〉(64), 〈오해가 낳긴 것〉(66) 등의 연출작품을 남긴 홍은원 감독, 초미니스크트를 입고 메가폰을 잡은 〈첫 경험〉(70)으로 당시 신선한 영상미로 호평을 받았던 황혜미 감독 등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여성감독들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있는 생소한 이름의 여성영화인들이 있다. 수십 년 간 척박한 한국영화의 현장에서 맹렬하게 활동해온 여성영화인들로 극장용 광고 '촬영수'를 그린 애니메이터 고금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유일한 여성 촬영기사로 활약했던 김문자, 농구스타 출신으로 세경영화사를 이끌었던 제작자 김화식, 배우 출신 전문 스크립터 노윤화, 영화제작자이자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흥행사 이월금, 여성 액션 배우로 인기를 끌었던 임은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70년대 초 한옥희, 김점선 등이 활동한 실험영화제작집단 "카이두" 그리고 80년대 소형영화제작 단체로 "바리터" 등 여성들만의 비주류 영화제작 단체의 활동도 있었다. 80년대 초반 현장 여성영화인들의

모임이었던 “영화회”(이혜윤, 이경자, 이미례, 임경민, 박금자, 권순미, 문명희 등)도 기억해야 한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원로 여성영화인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영화사에서 여성영화인들은 남성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고 영화현장에는 언제나 수많은 여성인력들이 존재했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여성영화인력의 증가세는 이제 가히 폭발적인 듯하다. 여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영화홍보 및 마케팅 분야는 물론이고 배우, 감독, 프로듀서, 촬영, 조명,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화현장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영화인들은 영화환경을 만들어가는 제작주체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 <본명선언> 등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서울영상집단”의 홍형숙 감독과 <낮은 목소리> 연작을 발표해온 “보임”의 변영주 감독이 독립영화 진영에서 값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업영화의 기획과 제작의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자리는 확고해졌다. 최근 여성 촬영기사로 활동하는 김윤희나 자신의 시나리오로 연출한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 비평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정향 감독의 등장은 한국영화계에서 여성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게다가 단편영화 쪽의 수많은 여성영화인들을 헤아려보면 가까운 미래, 여성영화인의 활약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성공적인 상업영화들 이면에는 거의 유능한 여성 제작자 및 프로듀서가 자리해 있다. 단편영화의 분야에서도 여성연출자들의 능력은 여러 영화제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밖에 예전에는 꿈도 못꾸던 분야인 촬영과 조명에도 여성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시나리오, 연출, 편집 등의 분야에서도 물론 여성들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그밖에 영화산업분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여성들의 인력은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다. 현재 여성영화인모임의 회원가입 현황을 보더라도, 극장, 배급, 해외 마케팅, 영화제, 분장, 영화행정, 사운드 엔지니어링 등 예전에는 흔치않던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여성영화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주진숙)





임순례

감독의 말

이 영상물은, 최근 심재명씨를 비롯 김미희, 오정완씨 등 여성제작자들이 굵직한 흥행영화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확실한 위상을 정립하고 연출 분야에서도 이정향 감독의 상업적 성공에 고무되어 후속 여성영화인들이 대거 총무로 입성을 준비 중이며 기술 분야에서도 차분히 정상을 향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눈에 띄는 현 상황에서 여성영화인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되짚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 여성들의 위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여성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든 일이 더 많다. 현재도 그러할진대 50~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시던 분들은 그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클 것이다. 초기의 영화인인 박남옥 감독, 김영희 편집기사에서부터 아직 어리게만 느껴지는 영과여중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을 만나 그들이 여성으로서 느껴야만 했던 어려움/작업환경 그리고 여성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통의 화제들을 화면에 담아보았다. 5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를 넘어서 여성끼리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내용이라고 느껴진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최대의 수혜자는 연출자인 나 자신이다.

연세가 많이 드신 선배영화인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분들의 용기와 영화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 동시대 여성영화인들에게서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후배 영화인들에게서는 구김살없는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감독 임순례

1960년 생, 파리 8대학에서 영화공부를 한 뒤 한국에 돌아와 <세상밖으로>의 연출부로 일했다. 1994년 <우중산책>으로 서울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1996년 <세 친구>를 만들어 장편영화 감독으로 입문했다. 2001년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그의 두번째 장편극영화이다.



(사) 여성영화인모임 창립총회에서



2000년 (사)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한 촬영워크숍

(사) 여성영화인모임



채윤희

(사) 여성영화인모임(대표 채윤희)은 영화관련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여성영화인의 저변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 여성영화인 중심의 단체이다. 2000년 4월 창립한 이래 (사)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여성영화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제1회 여성영화인축제를 개최하여 최은희 감독의 <민머느리>를 비롯하여 여성영화인이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을 상영했을 뿐 아니라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 여성감독들이 만든 단편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 이벤트 여성영화인의 역사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여성영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사) 여성영화인모임에서는 ‘프로듀서 및 홍보 마케팅 과정’ ‘프로덕션 디자인 과정’ ‘편집과정’ 등의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하여 여성영화인력을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성영화인의 역사를 발굴하여 그들이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 여성영화인모임이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과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 여성영화인이 말하는 영화>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올해 (사) 여성영화인모임의 중요한 결실이다.

(사) 여성영화인모임

110-53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6-8 3층
Tel 02-3673-2168 Fax 02-3673-2169
E-mail wifilm@wifilm.com Website www.wifilm.com



(사) 여성영화인모임

110-53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6-8 3층

Tel 02-3673-2168 Fax 02-3673-2169

E-mail wifilm@wifilm.com Website www.wifilm.com